

봄엔 슬로길 걷고
여름엔 전복 잡고
가을엔 유자 수확
겨울엔 한옥 체험

완도 사계절은 축제로 들쭉



지난해 완도 '장보고 축제'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맨손 고기잡이 체험을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건강의 섬' 완도가 연중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웰빙 농수산물들 테마로 하는 사계절 축제의 무대가 되고 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청산도 슬로 걷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 '장보고 축제', 7월 '소안 향 일문화축제'와 '노화 전복축제', 가을철 '고급 유자축제'와 '생일 미역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완도군은 4일부터 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2012 완도 장보고 축제'를 개최한다.

'빙그레 웃는 섬, 완도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추진 위원장으로 추대하고, 1200년전 청해진의 옛 영광을 재조명하기 위해 바다를 활용한 장보고 테마 프로그램 개발과 역사체험 프로그램 강화 등 차별화했다.

'대한민국 웃음왕 선발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웃음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오는 2014년 완도에서 개최예정인 '국제 해조류 박람회'를 대비해 해조류 전시 홍보관과 '전복·넙치 웰빙 판매관'을 상설 운영 한다.

특히 축제의 길러 콘텐츠로 연출하는 '청해진 해상전투'는 4일 저녁 7시 30분 주무대 일원에서 장보고 무역선 2척과 10여척의 어선을 활용해 아간 해적소탕을 재연한다.

6일 오후 2시에 분무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웃음왕 선발대회'는 SBS 스타킹을 통해 1차 예선을 거치고 5일 2차 예선을 거친 본선 참가자 20개

팀이 열린 경연을 펼치게 된다. 웃음왕 선발대회 피날레는 박준형 강성범 등 개그 투나잇 출연진 50여명이 나와 장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완도 전통 노젓기 대회를 비롯해 맨손 고기잡이, 장보고 무역선 항해체험, 2012 장보고 해초 김스타킹을 통해 1차 예선을 거치고 5일 2차 예선을 거친 본선 참가자 20개

한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들이 진행 된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이제 완도가 사계절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과 오고 있다"며 "여수 세계 박람회와 관련해 신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오는 25일에 조기 개장에 여름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철쭉의 향연 장흥 제암산으로

6일 '철쭉제'

'제22회 장흥 제암산철쭉제'가 6일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제암산(해발 807m) 철쭉제단에서 개최된다.

장흥군과 장흥 제암산악회(회장 김장규) 주최로 열리는 이번 철쭉제는 군민의 화합과 번영, 군 미래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철쭉제는 철쭉제례를 비롯해 철쭉선아 선발대회와 소망 리본달기, 꽃씨 풍선날리기, 철쭉가죽 촬영, 작

은 음악회, 불나물 특산물전 등 다채롭게 열린다.

장흥군 관계자는 "6일을 정점으로 철쭉꽃이 활짝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에도 군민과 산악인 등 3만여명이 제암산 철쭉평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 제암산 철쭉평원은 50~100년 수령 철쭉 9만9170㎡(30만여평)에 펼쳐져 있어 매년 5월 장관을 연출한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봄향기 가득한 슬로시티 증도로

신안군, 5일부터 한달간 산천맛이 축제

전남의 슬로시티가 요란한 일반 축제와 다른 모습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슬로시티의 대표적인 봄 행사는 완도 청산도 슬로시티 걷기축제와 신안 슬로시티 증도 산천맛이 축제, 이들 축제는 다른 봄 축제가 1주일여 짧은 기간중에 펼쳐지는 것과 달리 한 달여 동안 길게 운영된다.

축제장도 특별히 꾸며진 것이 없어 평상시 모습과 다르지 않고 고비용 구조와도 거리가 멀다.

구선 신안 증도로 '봄향기 가득한 슬로시티 증도로'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새봄 산천맛이 행사는 5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한반도 모양의 천년 해송술·모실길·갯벌·염전·소금박물관 등에서 전기차·마차·승마·소금·갯벌체험을 할 수 있고 녹색장터에서 지역 특산물 구입도 가능하다.

증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인 '신안 증도 슬로시티 주민여행사 길벗'은 증도를 찾는 관광객을 안내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 일정이 대부분 예약된 상태다.

이에 앞서 4월 한 달간 완도 청산도에서는 슬로시티 걷기 축제가 열렸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6만8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80여원의 직접적인 지역 소득을 창출했다.

축제에서는 유채꽃과 청보리밭, 서편제와 '봄의 왈츠' 세트장, 오솔길 같은 42.195km의 슬로길이 전국 나들이객들에게 인기를 모았다.

이기한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특산물 판매, 민박이나 펜션, 체험장이 활성화 돼 지역주민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주민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역 밀착형 사회사업 활발 '현대삼호중공업'

복지시설 후원·농어촌 결연·사랑의 집 고쳐주기...

기업-지역 '아름다운 동행'

영양에 위치한 세계 정상급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지역과 기업의 상생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그룹 창업자인 아산 정주영의 사회공헌 이념인 '사회의 가장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취지에 맞춰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각종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오병욱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솔선수범해서 지역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사 각 부서와 서를 등도 지역의 30여개 복지시설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와 지원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우 시설을 후원하는 서클인 '한울타리'는 매년 시설 1곳을 선정해 장애우들과 제주도 탐방에 나서고 있으며, 여름캠프와 문화탐방 등을 통해 장애우들이 자신감과 자립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부 부서와 서를은 회사 인근 독거노인들의 집 고쳐주기 행사, 지역 복지시설 전기 및 보일러 등 시설점검 행사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현대삼호중공업은 노령화로 어려움을 많은 농어촌 토키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05년부터 영암 흥월마을과 신안 돈독마을 등 지역 12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특히 1만2000여명이 근무하는

지역 최대 사업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회사 인근 농촌마을에서 생산된 쌀을 회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직접 자매결연 마을의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농촌인구 3명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농번기때 일손을 조급이냐가 떨어드리고자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농수로 준설, 모심기 등 작업을 펼치기도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사들로 구성된 임직원들을 농·어촌 지역으로 보내 전기·가스·수도·농기계를 수리, 지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한철 운동과 장기 기증에 대한 회사의 지원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도 활발하다.

지역의 백혈병 환자를 돕는 사내 봉사서클인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 회원 600여명은 한철 외에도 정기 성금을 모아 지난 15년간 백

혈병 환자 330여명에게 4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에는 임직원 2600여명이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참여해 대내외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서남권에서 공연되는 오페라와 콘서트·연극 등 문화예술 공연을 꾸준히 후원, 사우가족 및 지역민들의 문화 후원자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페라와 발레·뮤지컬·연극 등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27건의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후원했다.

올해 역시 5월에 '넥스트 투 노발', 9월에 발레 '백조의 호수' 등 여섯 작품을 후원할 계획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소통하고 공생 발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함께 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사랑의 집 고쳐주기

전남농협, 농촌 투병 어린이 의료비 지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 나눔운동' 일환으로 농촌지역 취약계층 환아(患兒)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지역본부는 태어나면서부터 입술이 갈라져 있는 구순열(口脣裂)로 고통받고 있는 이모(16·목포시 죽

교통)양의 치료비 지원을 시작으로 도움이 절실한 환아(患兒)를 선정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환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장애를 갖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취약계층(20세 이하)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堂堂히 살아 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www.fbo.or.kr 2012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fb 농지은행이 경영위기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계속 영농하면서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 매입대상**
 -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부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 등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 *서식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620-2030, 2031 홈페이지 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fb 농지은행

소나무 살리기

국민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푸르른 소나무·잣나무를 보호하려면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증상

건강한 소나무

감염된 소나무

고사된 소나무

건강한 소나무·잣나무에 재선충병이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밑이 아래로 처지며, 점차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어갑니다.

앞이 우산상 모양으로 처지면서 갈색으로 죽어가는 소나무

수술염해는 수피를 흔적(탈출공)이 있는 소나무

감염목의 무단이동 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국민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전화 063)620-4620

서부지방산림청 (문의전화 063)620-4630) 관리하기 힘든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